

- 주요 뉴스: 미국, 연말 연휴 기간 소매판매 전년비 증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효과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
 - 중국, 입국자 강제격리 철폐할 계획.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관련 안전 강조
 - 일본은행 총재, 단기간 내 초완화적 통화정책 중단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
- 국제금융시장: 미국 및 유럽 금융시장은 대부분 성탄절 대체휴일로 휴장
 - 주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수수료 인하 등으로 0.65% 상승
일본 닛케이지수는 저가매수 유입 등으로 0.65% 상승
 - 환율: 중국 위안화 가치는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0.39% 상승
엔화는 달러화 대비 강보합
 - 금리: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0.45% 추가 통화긴축 가능성 등으로 6bp 상승
미국과 유럽 채권시장은 대부분 성탄절 대체휴일로 휴장

※ 원/달러 1M NDF환율(휴장), 한국 CDS 포함

		12/26일	12/23일	전일대비			12/26일	12/2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3,844.8	-	국채 금리 10y	미국	휴장	3.75%	-
	유럽	휴장	427.45	-		독일	휴장	2.40%	-
	중국	3,065.6	3,045.9	0.65%		영국	휴장	3.64%	-
	일본	26,406	26,235	0.65%	CDS 5y	한국	53bp	53bp	0bp
	한국	2,317.1	2,313.7	0.15%		중국	75bp	76bp	-1bp
환율	달러지수	휴장	104.31	-	위험 지표	EMBI+	-	374	-
	유로화	1.0637	1.0617	0.19%		VIX	휴장	20.87	-
	엔화	132.88	132.91	0.02%		WTI유	휴장	79.56	-
	위안화	6.9627	6.9900	0.39%	원자재	구리	휴장	380.3	-
	원화	1,274.8	1,280.8	0.47%		금	휴장	1,798.2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연말 연휴 기간 소매판매 전년비 증가. 대규모 할인행사 등이 효과

- MasterCard에 따르면, 11/1~12/24일까지의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비 7.6% 늘어나 9월 예상(7.1%)에 비해 높은 수준. 당시에는 이른 쇼핑에 나선 소비자들 많아 통상적인 본격 쇼핑 시즌이 시작되어도 소비자들의 구매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 이번 결과는 WalMart, Amazon 등 주요 소매업체들이 재고 수준을 낮추기 위해 시행한 큰 폭의 할인행사가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다만 증가율의 경우 작년(8.5%)에 비해서 하락했는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 및 경기침체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부문별로는 의류, 외식 등이 각각 전년비 4.4%, 15.1% 증가한 반면 전자제품 등은 5.3% 감소. 온라인 판매의 경우 10.6% 늘어나 전년동기(11.0%) 대비 증가율이 소폭 하락. 다만 이번 조사에서 자동차 판매는 제외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겨울 혹한 등으로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

- 강력한 겨울 태풍 등으로 온도가 급락하면서 일부 천연가스 저장탱크 및 수송관의 정상 작동이 어려운 상황.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가스 공급은 당초 당국의 계획에 비해 10% 감소한 수준

■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지속적인 금리인상 필요

- 뉓 총재는 통화긴축 사이클의 절반이 지났을 뿐이며, 인플레이션 억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고 설명. 향후 금리인상이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내년 여름 정책금리는 정점에 이를 것으로 판단

■ 영국 싱크탱크 CEBR, '23년 세계경제는 침체 국면에 진입

- CBER(경제경영연구소)은 인플레이션 억제 과정에서 발생한 높은 대출금리 등이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분석. 또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각국의 중앙은행은 값비싼 경제적 비용에도 통화긴축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다만 개발도상국의 성장으로 세계 GDP는 '37년 2배가 될 것으로 추산

■ 일본은행 총재, 단기간 내 초완화적 통화정책 중단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

- 구로다 총재는 지난 주 이루어진 국채수익률제어 조정은 출구전략을 위한 첫걸음이 아니라 초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이번 조치는 저하된 채권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며, 계속해서 금융시장에 대한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입국자 강제격리 철폐할 계획.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관련 안전 강조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국자 강제격리 조치를 내년 1/8일부터 중단할 계획. 엄격한 코로나 관련 규제를 해제했기에 실질적으로 입국자 격리는 무의미한 상황. 이를 감안해 정부는 해외와의 교류 정상화를 위해 이번 조치를 결정. 전문가들은 이를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평가
- 한편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지역사회의 방어선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 리커차 총리도 과학적 예방과 통제 관련 적극성을 갖추도록 주문

■ 중국 정부, 식량 안보가 중요. 대규모 곡물 증산 등 농업강국 건설을 목표로 제시

- 최근 개최된 중앙농촌업무회의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 특히 5,000만톤의 곡물 증산, 농지 및 종자 확보, 농민이익 보장 등을 주장

■ 러시아 외무차관, 러-우 전쟁 장기화 가능성. 금년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 감소 예상

- 갈루진 차관은 현 상황에서 종전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의 수복과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
- 한편 노박 부총리는 금년 천연가스 생산 및 수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인프라 문제 발생 등으로 전년비 각각 12%, 25%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 다만 석유의 경우 생산과 수출이 각각 2.0%, 7.5% 증가할 것으로 기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12/27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제품 11월 무역수지 및 도매재고, 12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지수
- 미국 10월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및 FHFA 주택시장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주택경기 부진,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에 도움 - WSJ

(Housing Slump Set to Give Fed an Inflation-Fighting Assist)

- 주택경기는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활황기를 보냈으나, 최근 고금리 여파 등으로 기존주택매매가 10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불황 국면이 지속. 내년에도 주택가격 하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 한편 주택가격의 소비자물가 기여도는 1/3,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기여도는 1/6으로 미국 물가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 이에 내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도 크게 떨어질 소지. 내년 말 물가상승률이 3.1%로 둔화될 것이라는 일부 연준 관계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전망은 이러한 가능성 등에 근거
- 다만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주택시장 둔화만으로 물가 목표 달성은 어렵다고 판단. 특히 소득증가임금상승이 소비지출 지속 및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

■ 미국 연준과 투자자, 2022년 증시 및 채권시장 예측에 오류 - WSJ

(Wall Street and Fed Flopped in Trying to Predict 2022)

- '22년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는 한편 채권 투자 손실도 큰 편. 이는 시장분석 실패로 인한 것이며, '23년에도 이와 관련한 논쟁이 진행. BofA가 시행한 조사에서는 전세계 물가상승률이 12개월 내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채권시장에서는 2년물 국채금리가 11월의 정점보다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연준의 금리인상이 더 이상 전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 발신. 하지만 고물가는 '23년에도 꼬리위험(tail-risk)으로 인식되어, 금리인상은 시장에 가장 큰 위험 요소

■ 러시아의 석유감산, 자국의 원유매출 감소만을 초래할 소지 - WSJ

(Putin Can't Count on the Global Oil Market)

- 유럽과 미국은 국제유가 급등 및 공급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시행. 최근 러시아산 원유는 국제유가 대비 45% 낮은 배럴당 40달러 중반에 거래. 세계경제 둔화 등이 가격 상한제의 원활한 시행에 일조하는 것으로 추정
- 내년 2월 가격 상한제가 휘발유 등 러시아산 정유제품까지 확대될 예정. 러시아는 감산에 따른 유가상승 유도가 유일한 대책이지만,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유 방출 등으로 감산충격은 제한적일 가능성. 오히려 중국 등 러시아 원유의 주요 소비국은 가격상승의 충격이 예상. 이에 러시아는 감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에 직면할 소지

■ '23년 금융시장, 경제 및 주가 전망 관련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WSJ

(Wall Street Nailed Earnings but Missed the Bear Market)

- '21년 전문가들은 금년 S&P 500 기업실적을 정확히 예측. 그러나 주식 및 채권 강세장을 전망하였으나 S&P 500 지수는 금년 19% 하락하며 약세장을 기록. 이는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수익률 상승이 주가 향방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 또한 인플레이션 문제 조기 해결이라는 잘못된 전망도 약세장 예측의 실패 요인
-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23년 경미한 경기침체와 제한적인 기업실적 둔화. 하지만 경제전망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침체 심화 및 그에 따른 기업실적과 주가 하락 가능성 대비가 요구. 아울러 인플레이션 조기 해결과 경기 확장에 따른 주가상승 및 채권금리 상승의 시나리오 준비도 중요

■ ECB의 통화정책 방향, 긴축 기조는 당분간 지속 전망 - Financial Times

(Leading ECB policymaker hints at sharp climb to peak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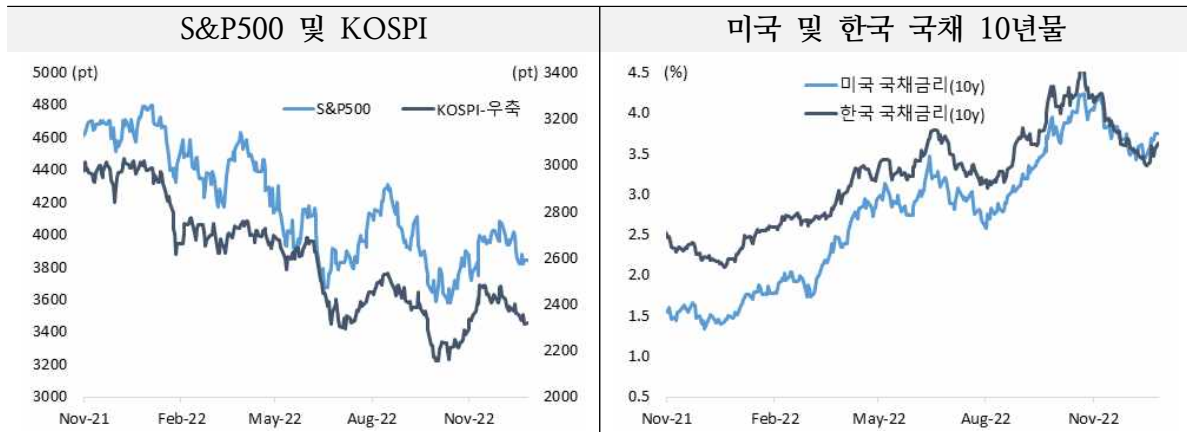
■ 중국 코로나 19 감염 급증, 내년 1월 정점 통과 가능성 - 블룸버그

(Chinese Cities See Covid Peaking in January as Official Data Gets Obscured)

■ 브라질 대규모 지출법안 통과, 정책금리 및 인플레이션 상승 초래할 소지 - 블룸버그

(Brazil Analysts See Higher Inflation, Benchmark Rate in 2023)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